

## 새로운 각오로 출발합시다!



김우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연세대 총장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요약되는 21세기는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 발전의 주  
도자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감당해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힘겹게 비쳐지는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극복하  
고, 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의 산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으로  
써 사회 변화를 주도해 달라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설립된지 올해로 만 20주년이 되어 사람  
나이의 치자면 이미 성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교협은 194개 회원 대학의 총장  
이 모인 협의체로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때로는 대표성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교협은 필요  
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케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알려져 있는 교육 문제들로서 획일적인 대학 체제, 대학의 폐쇄성, 구성원간의  
경쟁 부족, 열악한 연구 여건, 느슨한 학사 운영, 대학 재정의 빈곤, 전임교원의  
부족, 각종 행정 규제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교육 문제들로는 구조 조정, 대학의 자율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대학  
간 역할 분담(연구중심, 일반대학), 정보화 투자, 대학교육의 세계화 문제 등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대교협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 시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주축으로 하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보편화되면서 각 부문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냉혹  
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의 고등교육

정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고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시대적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계획·시행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나갈 유일한 길은 각 부문에 있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제고의 방안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 발전의 핵심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대학 문화의 쇄신과 창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쓴소리'를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대교협 회장으로서 우선 3개월마다 "대교협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를 정례적으로 열어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제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등교육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등을 위한 연구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대학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학 발전을 위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들을 사색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갑시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요, 최고 지성의 산실이며, 학문 발전의 주도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대학의 본연의 역할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본연의 역할에 대해 우리 모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들을 졸업하기 어려운 공부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갑시다. 공부하는 대학 풍토 조성은 우리 대학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학생을 가장 사랑하는 교수는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 하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 국가 발전에 크게 쓰일 수 있는 동량이 됨은 자명합니다. 면학 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수 모두가 정성을 다하는 노력과 함께 자기 계발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들을 특성을 갖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나서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부분 대학들이 그동안 특성 없는 다양한 전공과 학과를 양산해 온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를 통하여 각 대학의 사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대학의 사명과 잘 부합하면서도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과 결부되는 전공 혹은 학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학들이 특성을 갖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나서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결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대학인 모두가 힘을 모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합시다! 